

총장-뉴스레터 – 79 (2024-4-26) 출 32 장 1 절-35 절 (언약의 파기와 형벌)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
(출애굽기 32:35)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선민 관계는 오직 끝없이 의심하고 거듭 배신하였던 이스라엘을 때로 크게 징계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한번 택한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만 계속 유지되어온 사실을 지적하였었다.

출애굽기 제 32-34 장 사이의 총 9 문단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전민족적 배신과 반역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 사건의 하나인 소위 '시내산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관련 기사 일체를 연이어 보도한다. 이 시내 산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전원이 물과 음식조차 구할 수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던 때에, 더욱이 모세가 시내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가 될 성막 관련 계시를 받는 중에 발생함으로써 그 충격과 가증의 도를 더하고 있다.

금송아지 상

증거판에 새긴 하나님 말씀을 아직 모세가 백성에게 가지고 오기도 전에, 백성은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등지고 신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 입증하셨는데도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좀 더 구체적인 보장을 원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이웃 민족들에게 보았던 현장, 곧 자연의 여러 세력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현상에서 비롯되는 유혹에 빠진다. 아론은 이 송아지를 하나님의 한 형상이라고 설명했지만, 백성들은 버릇없이 여호와를 송아지와 같게 봄으로써 이 형상은 우상이 되었다. 그들의 신을 위한 잔치가 성적 광란으로 변질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본성이 드러났다.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

노아 홍수 사건 때도 그랬듯이 여기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동을 자신이 아드님 느낌없이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피조물들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 이는 하나님께 괴로운 일이 되어 하나님은 심지어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갓은 환멸을 겪으시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린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행위를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맞서시게 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도록 간구한다.

모세가 언약의 증거판을 깨뜨리다

이제 모세는 백성 앞에서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곧 거룩한 분노 가운데 언약의 증거판을 깨뜨리고 우상을 파괴한 것이다.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마시게 한 것은 민수기 5 장에 기록된 '여인의 간음여부를 확인하는' 예식을 상기시킨다. 책임을 면하려고 아론은 자기는 백성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였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우상이 생겨난 것이 기적이라도 되는 듯이 말하면서 자신은 그 기적이 나타나도록 도왔을 뿐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분노는 모세가 언약의 증거판을 깨뜨리는 것을 허용하심으로 나타났다.

백성이 벌을 받다

아론이 제 구실을 못하였으므로, 모세는 충성스럽게 남은 자들에게 호소하여 그들을 통하여 본보기를 주려고 한다. 레위인들은 자기 친족까지도 봐주지 않고 피비린내 나는 처형을 감행함으로써 자기들이 제사장 직무에 적합한 자들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이 이야기에는 제사장 직을 둘러싼 후대의 대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드리다

모세는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죄를 깨끗이 하고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한다. '슬프도소이다' 라는 표현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 슬퍼하며 용서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함으로 범죄하였으므로 모세가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 없이 포기하려는 모세의 희생적인 모습을 잘 보여 준다. 그리고 이는 인류 대속 사역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모습을 예표한다.

모세의 대속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금 바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심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의미한다. 죄는 용서하셨지만 지금까지 친히 통행하여 인도하시는 대신 사자를 시켜 동행하시기로 하셨다.

생각하기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우상숭배한 자들을 치셨다. 즉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별까지 완전히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응이 부분적으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나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우파카드티' 가 완전히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완료형으로 쓰인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 및 상벌까지 보여 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완전한 심판과 상벌은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공의의 엄정함을 깨닫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